

11) 송치(松峙)

서면 학구에서 황전면 송치로 넘어가는 재로, 사람들은 ‘소런재’라고 부른다. 소런재 동쪽 산봉우리에서 황전면 쪽으로 내려가자면 묘비가 있는데 거기엔 솔연치(率燕峙)로 새겨 있으며, 재 정상 주유소가 있는 곳엔 송치(松峙)라 새겨놓았고, 황전면의 마을을 송치(촌로들은 산골내기라 부름)라고도 한다. 재는 하나인데 그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단중일기』에는 “정유년(1597) 4월 27일에 순천 송원에 이르다.”란 기록이 있으며, 이수광은 『증평지』에 송현원(松峴院)이라 기록하였다.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 송원리(松元里)와 와요리(瓦要里)가 보인다.

재의 이름이 ‘솔재’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뜻움을 해 송치와 송현으로 적었고, 그 재에서 서면 계곡에 나라에서 경영하던 원(院)을 설치하고 송원과 송현원으로 이름했지만, 사람들은 한자대로 부르지 않고 ‘솔원’이라 불렀던 것 같다. 그리고 ‘솔원이 있는 재’란 뜻으로 ‘솔원재’라 부르면서 옛 이름인 ‘솔재’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만 문헌에 송치라고 기록되어 있어 도로를 확·포장하며 송치라 새겨 세운 것이다. 그리고 재 아래 마을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솔원재’가 ‘소런재’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째서 ‘소런재’라고 하였을까? 한국전쟁 때 소련군이 이 재를 넘어왔다고 ‘소런재’라고 하였을까 하고 무척 궁금해 한다.

요컨대 ‘솔재’가 원이름이고 이를 한자로 송치와 송현으로 표기했고, 관리나 나그네가 머물다 가는 원을 설치하고 송원이라 이름했다. 한자대로 부르지 않고 ‘솔원’이라 불렀다가 ‘솔원’이 있는 재란 뜻으로 ‘솔원재’라 불렀고, 거기서 소리가 변해 ‘소런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역원제가 폐지되면서 그곳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살기 때문에 마을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일제의 자료에 송원리로 기록된 것이다.

참고자료

1. 마을이름의 변천

- 『체중실록』 지리지.
- 『토려사』.
- 『태동지』.
- 『혁도비』.
- 『강남악부』.
- 양주동, 『토가연구』, 1942.
- 순천대, 『순천시의 문화유적』, 1992.

2. 마을의 지명유래

- 순천문화원, 『순천마을유래』, 1993.
- 김정호, 『천남의 마을유래』, 1988.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2.
- 승주향리지편찬위원회, 『승주향리지』, 1986.
- 여수문화원, 『혁수동사』, 1993.
- 여천군, 『혁천군 마을유래』, 1993.

3. 산천 평야의 지명유래

친증동국여지승람』.

이수광, 『증평지』.

증주문헌집편찬위원회, 『증주문헌집』.

임석진, 『증광사지』.

진인호, 『증광향지』.

진인호, 『순천과 낙안의 이름』, 『향토문화보』 통권 제13호.

『동북읍지』, 1915, 광주일보 도서관 소장.

『조선사찰사료』상.